

<수능완성 고전시가 주요 작품 문제 해설서>

1.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②

(가)에는 속세의 욕망을 초월하여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며, (다)에는 '빈 배'처럼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 [출제의도] 다른 매체로 변용하기

정답: ②

(가)의 '어부'는 직업적인 어부가 아니라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자연의 아름다움에 몰입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어부로서의 직업의식은 작품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 [출제의도] 시상 전개에 따른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④

(나)에서 화자는 가난을 탄식하면서 슬퍼하다가 '가난 귀신'과의 대화를 통해 가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삼순구식', '십년 동안 한 갓을 쓰거나' 등으로 빈곤한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안연'과 '원현' 등 고사 속의 인물을 들어 빈곤을 강조했다. '가난 귀신'은 화자의 무력함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의리 없는 화자를 꾸짖은 것이다. 또한 화자는 이런 질책을 들으며 태도를 바꾸어 가난을 수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비교하기

정답: ①

[A]와 [B] 모두 '가난 귀신'과 '바위'를 의인화하여 주제를 드러냈으며, [A]는 자신을 버리지 않는 '가난 귀신'과 나를 버리는 '무정한 세상'을 대조하고 있으며, [B]는 '빈 배'와 '사람이 타고 있는 배'의 대조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A], [B] 모두 과장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5. [출제의도] 작품에 대한 종합적 감상

정답: ⑤

'바위'는 '변함없는 존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이 기존의 인식이며, 이는 '바위'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나'는 바위도 변함없는 존재는 아니며 한 군데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의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바위'와 '나'의 대화를 통해 고정관념을 뒤집는 개성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6.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 ③

(가)는 '가난'을 의인화하여 평생 동행해야 하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그리면서 가난을 수용하는 모습을 노래한 가사이다. (나)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비하여 외진 곳에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석죽화의 모습에 자신을 비유한 시이다. (다)는 밤나무와 같이 더디 성장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길에 최선을 다하고 수양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저절로 이룬다는 설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7.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⑤

(가)의 '므슴하리'에는 화자가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체념하는 태도가, (나)의 '불이누나'에는 '외진 땅'에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8. [출제의도] 중심 소재 이해하기

정답: ①

'좋은 꽃'은 화자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비유한 소재이고, '밤나무'는 글쓴이가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소재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9. [출제의도] 시구 및 문맥 이해하기

정답: ③

㉠에서 윤상군은 밤나무를 통해 긍정적 미래를 성취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0.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정답: ①

'동편 이웃에 따비 얻고 서편 이웃에 호미 얻고', '나라 빛과 이자는~어찌하여 차려낼꼬', '시절이 풍년인들~몸을 어이 가릴꼬' 등에서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의 어려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11.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정답: ③

㉠은 화자가 가난하여 나라 빛과 이자를 마련하기 어렵고, 부역과 세금을 감당하기 힘든 처지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기에는 가난으로 인한 화자의 절망감이 담겨 있다."

12.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한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정답: ⑤

<보기>의 화자는 작품 전반에 걸쳐 가난하지만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이에 비해 윗글의 화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궁귀'와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가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3.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⑤

[가]에는 봄이 되어 농사를 지으려니 농기구도 없어서 빌려와야 하고, 농기구를 빌려 와 씨앗을 찾아보니 벌써 한 말은 쥐가 반 이상 먹어버렸고, 기장, 피, 조, 팥은 겨우 서너 되 남아 있어 춥고 굶주린 식구가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의 어려움과 탄식이 드러나 있다. [나]에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가난귀신의) 이름을 부르며 전송하면서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라고 하니, (가난귀신이) 불평하며 화를 내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이별할 일이 없었는데 어디 가서 누구의 말을 듣고 가라고 하는 것이냐"며 우는 듯 꾸짖는 듯 험박하는 의인화된 가난귀신과 화자와의 대화가 나타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가난귀신의 말에 설득적 어조가 있지

만, 이것을 화자의 의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가]에는 설득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에는 구체적인 소재(쟁기, 호미, 울벼, 기장, 피, 조, 팔 등)가 열거되어 있고, [나]에는 추상적인 소재(가난귀신)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③ [가]에는 궁핍한 현재 상황이 드러나 있고, [나]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대화 형식으로 드러나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라는 표현에서 현재 상황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④ [가]에는 농기구도 없고, 농사지을 씨앗도 없고, 남은 곡식도 없다는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나]에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가난귀신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이것을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14.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②

㉠은 부역과 세금을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말로, 이는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나 그조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의미이지, 가난을 핑계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답파하기] ① ㉡은 중들에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일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마음이 담겨 있다. ③ ㉢은 남들에게는 (예년에 비해) 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의복이 제대로 없는 자신에게는 춥고 고통스러움을 표현한 것이다. ④ ㉣은 당장 먹고 살 양식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떡과 같은 음식을 해 먹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임을 표현한 것이다. ⑤ ㉤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찾아 온 친척들을 대접할 것이 없는 상황에 대해 탄식하는 것이다.

15. [출제의도] 화자의 태도 비교하기

정답: ③

[A]에서 화자는 하늘이 만든 자신의 가난한 인생에 대해 '이다지도 괴로운고'라며 탄식하고 있고, [B]에서 화자는 빈천도 자신의 분수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라며 가난에 대해 체념하며 수용하고 있다.

[오답파하기] ① [B]의 '하늘 만든 이내 가난'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을 운명적으로 인식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 것이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신념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 ② 나기 싫지도 않은지 너무도 잘 나는 잡초 '싸리피 바랭이'는 화자의 비참한 상황을 더욱 강조하는 소재이므로 화자의 낙관적 세계관이 변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부러워하나 어찌하리'에는 화자의 열등감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곡 장리, 부역, 세금 등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괴로운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 있으며, '설마한들 어이하리'에는 우월감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대한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⑤ '이 얼굴 지녀 있어'는 화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년에도 배고프고, 겨울에도 몸을 가릴 옷이 없고, 벼를 복도 술 시루도 쓸 일이 없으며, 제사도 못 지내고 손님 접대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빈천도 내 분수니'는 자신감이 약화된 표현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체념과 수용의 태도가 드러난 표현이다.

16.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 ③

(나)는 '부평초' 등에 의지하여 중상모략을 일삼는 무리를 비판하고 (다)는 '작은 소나무'를 통해 본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7. [출제의도] 두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하기

정답: ①

[A]는 자연에서의 화자의 만족감을, [B]는 화자와 작가가 처해 있는 현실과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8.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정답: ②

㉠은 자연을 즐기느라 바쁜 마음을 표현한 것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19. [출제의도] 시어가 지닌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기

정답: ⑤

'부평초'는 후원자를 잃은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고, '작은 소나무'는 본성을 잃은 존재로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0. [출제의도] 관점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정답: ①

<보기>에서 '뿌리'는 후원자를 의미한다고 했으므로 '풀'은 약자를 억압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1. [출제의도]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 ④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사계절에 따른 풍류를 즐기고 있고, (나)의 화자는 면양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며 자연 속에서의 즐거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통해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가)와 (나) 모두 화자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②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③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22. [출제의도] 연시조의 내용과 구조 이해하기

정답: ⑤

(가)는 유교적 이상이 현실화된 세종 대에 지어진 작품이다. 화자가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는 작품에서 찾을 수 없고, 화자의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조화가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라는 근거도 작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각 수의 초장과 중장은 주로 강호 자연에서의 개인의 풍류와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의 사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이 몸이 ~해

음도'에서 '~'에 해당하는 내용은 초장과 중장에서 제시한 강호 자연에서의 화자의 풍류와 흥취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몸이 ~해움도'가 사적인 삶의 모습을 압축하여 제시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다'는 화자가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군은이샷다'를 화자가 신하라는 공적인 삶과 관련지어 한 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개인의 평안한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다는 <보기>의 설명을 볼 때, 화자가 걱정이나 탈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하기

정답: ⑤

㉔은 '오늘이'와 '내일이라', 그리고 '부족하니'와 '유여하라'가 각각 대구를 이루고 있고, '유여하라'에서는 설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덧없이 흘러보낸 시간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㉔은 대구와 설의를 활용하여 경치를 감상하느라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① ㉑은 '강파'를 '유신'하다 하여 강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강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㉒은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는 '삿갓'과 '누역'을 사용하여 소박한 삶에서 느끼는 겨울의 안빈낙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검소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㉓은 누렇게 익은 곡식의 모습을 '황운'에 비유하여 풍성하게 익은 곡식들이 넓은 들판에 펼쳐진 모습을 통해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누렇게 익은 곡식을 황운에 비유하여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㉔은 '경궁요대', '옥해은산'과 같이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미화하여, 화자가 처한 공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강조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가)에서 화자는 매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면양정 주변 사계절의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의 필자는 덕보 흥대옹이 지닌 비범한 능력과 인물됨에 대해 찬양하고 있다. 결국 주어진 세 작품 모두에서는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25. [출제의도] 추론적 사고(시어의 기능과 역할 파악)

정답: ②

'황혼월'은 '매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보조 관념이 아니다. 황혼속의 달이라는 자연 정취와 연관되는 본 관념으로서의 시어이다. 시 전체에 걸쳐서 단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화자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는 시어이다. ③ 화자는 매화의 상징적 속성을 들어 '우아함'과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④ 두견화는 진달래이다. 화자는 철쭉이나 진달래의 속됨과 다른 매화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눈'은 어려운 환경을 의미한다. 화자는 이러한 눈을 이기는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소재로 '눈'을 활용하고 있다.

26. [출제의도] 창의적 사고(다른 갈래로 전환하기)

정답: ②

동영상이라는 다른 갈래로 전환하여 보는 문제 유형이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작품의 정황과 연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 (가)의 분위기는 우아함과 절제된 아름다움, (나)의 분위기는 아름다움과 신비함의 흥취이다. 그런 만큼 동영상에서 (가)를 '구슬품'이라는 분위기와 연관하여 영상화한다면, 이는 주어진 작품의 분위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잔 잡아 권하는 구절과, (나)에서 남여를 재촉해 타는 구절과 상응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가)에서는 백설 양춘이라는 시어를 통해, (나)에서는 시상 전개에 흐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는 '달'을 통해, (나)에서는 '사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에서는 '동각'의 언급을 통해 한옥의 뜰이 연상되며, (나)에서는 남여를 타고 길을 통해 도달한 '백척 난간'의 상황을 통해 주변 풍경의 조망이 가능한 곳이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될 수 있다.

27. [출제의도]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③

㉔은 아름다운 가을 산의 풍경과 모습이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흥에 겨운 피리소리와 연관해 볼 때, 어떤 적막감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황앵'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었다. ② '긴 조으름'이라는 시어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④ 청각 심상으로서의 '어적'과 시각 심상으로서의 '달'이 동시에 드러난다. ⑤ '가는 곳곳마다 불만한 경치로구나'라며 감회를 집약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추론적 사고(시어의 기능과 역할 파악)

정답: ④

㉔은 노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화를 완상하는 화자의 풍류적 감각을 드러내기 위해 차용된 소재이다. 반면 ㉔은 그 이후의 문장과 연관하여 생각하면 된다. 곧, '자중 자애하면서 세속을 벗어나 마음을 닦는' 수양의 도구로서 거문고가 사용되는 것이다.

29. [출제의도]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②

덕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필자는 덕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평소의 생활 자세인 겸손함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③ 육비, 엄성, 반정균과 같은 중국의 학자들과 비교하면서 흥덕보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⑤ 전체적으로 여러 일화와 예를 동원하여 덕보의 인물됨을 말하고 있다.

30.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 ②

(가)의 2수에 국화를 '내 벗'이라고 의인화한 부분과 4수에 대숲이 청풍을 반긴다며 의인화한 부분, 그리고 (나)에서 나무를 '흙과 태양의 아들'이라고 의인화한 부분, 달을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 등으로 의인화된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자연물을 통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① (가), (나) 각각 '사우'와 '나무'를 예찬하는 어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③ (가), (나) 모두에서 점층적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④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3수에서 '아니 귀(貴)고 어이리'에서 설의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나)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정답: ④

<보기>에는 유배 중인 작가에게 시련을 가져다 준 정치 현실에 변화의 조짐이 드러난다는 단서는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수의 술에게 풍상, 즉 바람과 서리는 시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므로 정치적 시련을 겪는 작가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② 봄 빛을 가진 소나무는 불변성을 의미하므로 뜻을 바꾸는 숙된 선비와는 다른 작가의 삶의 자세로 볼 수 있다. ③ 안온한 삶을 의미하는 춘광을 마다하고 국화를 벗으로 삼는 것은 작가의 고고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⑤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을 청풍이라 여기고 반기는 것은 유배지의 힘겨움을 이겨내는 씩씩한 기상이라 볼 수 있다.

32.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기

정답: ①

㉠은 겨울이 되면 사라지는 가변성을 지닌 존재이고 ㉡은 가변적인 꽃과 풀과 대비되는, 불변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적절하다. ② ㉠은 겨울이 되면 간 곳 없으므로 강한 생명력과는 무관하고 ㉡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지닌 사물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은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은 가변적이므로 부정적인 속성을 지녔고, ㉡은 긍정적인 속성을 지녔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은 화자를 성찰하게 하는 존재일 수 없고 ㉡은 과거 회상과 무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33. [출제의도] 글쓴이의 생각 파악하기

정답: ③

고독을 경험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삶의 깨닫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천명을 다한 뒤에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달을 유달리 후대하고 새와 바람을 박대하는 일도 없'고 '달은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한다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사람은 가다 장난 삼아 칼로 제 이름을 새겨 보고, 흔히 자기 소용달는 대로 가지를 쳐 가고 송두리째 베어' 가는 등 나무에 상처를 줌에도 나무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정답: ①

(가)는 새로운 도성인 한양과 개국 군주인 태조에 대해, (나)는 '사우(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에 대해, (다)는 문화유산인 석굴암에 대해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공간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가)이다. ③ (가)와 (나)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만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이 나타나고 있다. ⑤ (나)는 시련을 상징하는 시어를 제시한 후 이에 굴하지 않는 '사우'의 속성과 모습 등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다)는 관련이 없다.

35. [출제의도] 시어와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정답: ⑤

'칭빈한 삶'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하게 지내는 삶을 의미하는데, (나)의 '청풍을 반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언급하여'는 이와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늠연한 줄 반가온더'는 '술'이 위엄이 있고 당당해 보임이 반갑다는 의미로 자연물에 대한 감탄을,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석굴암 천장 장치의 예술미에 대한 감탄을 표현한 것이다. ②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술'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석굴암 앞문에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③ '그윽한 향기'는 매화에 대한, '어여쁜 파란 산들'은 석굴암 밖의 경치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 것이다. ④ 대나무를 보려고 창을 연 후 '대숲이 푸르려세라'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자가 원하는 사물을 본 상황이다. 동해의 일출 광경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글쓴이가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한 상황이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정답: ③

'개국성왕이 성덕을 니르어샷다'는 개국성왕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의미로,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절에 임금의 말씀을 전했다는 의미는 없다.

[오답풀이] ① '네는 양주 | 꼬올히여'는 한양의 옛 지명이 양주임을 밝히는 것이고, '당금쟁'은 지금의 정치라는 의미이므로 한양의 현재 풍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이 과거의 표지, '당금'이 현재의 표지가 된다.

37.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정답: ⑤

(나)의 <제1수>의 '풍상'과 '봄빛', <제2수>의 '춘광'과 '엄상', <제3수>의 '눈', <제4수>의 '백설'이 계절감을 활용한 시어이다. (나)는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시련의 계절을 맞아 의연함을 보이는 '사우'의 모습을 통해 '사우'에 내재된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동작을 묘사한 것은 <제4수>이다. ② <제2수>, <제3수>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한 부분은 없다. ③ 색채 대비는 <제4수>에만 나타나며, 이는 '사우'의 장점을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38.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한다.

정답: ⑤

(다)에서 글쓴이는 석굴암을 둘러보고 밖으로 나와 주위의 절경을 '선경'으로, 동해의 일출 광경을 '선경중에서도 선경'으로 비유하였다. 하지만 동해의 일출 광경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속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다)의 글쓴이는 자신이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인왕과 사천왕이 홉든 눈과 부르건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훌쩍하고, 사지는 울퉁불퉁한 세찬 근육!'에서 생생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신품'이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한 것이다.

④ (다)의 화자를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한 명의 화자로 보면, 종장에는 시적 대상인 두꺼비의 변명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두고 두꺼비의 허세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39.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서는 대나무를 '너'라고 지칭하며 '세한고절'로 칭송하고 있고, (나)에서는 국화를 '너'라고 지칭하며 벗으로 여겨 예찬하고 있으며, (다)의 종장에서는 두꺼비를 의인화하여 두꺼비가 자신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통해 허장성세를 풍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다)의 종장에서 어조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가)와 (나)의 경우는 어조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
- ② (가)에서만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나무를 예찬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인간과 자연을 직접적으로 대비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와 (나)는 각각 대나무와 국화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프를소냐', (나)의 '혼자 뛰니', '청고흐' 등은 대나무와 국화의 긍정적 속성을 언급한 것이다(㉠). (가)의 '눈', (나)의 '엄상'은 사군자의 가치를 부각하는 시련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가)와 (나)에서 사군자의 심미적 가치를 예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 (가)와 (나)에는 사군자와 직접적으로 대비되는 다른 식물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다)에 복수의 화자가 등장한다고 보면 종장은 두꺼비가 표면에 등장하는 화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의 종장에서 두꺼비는 몸이 날쌔다는 자기의 장점을 거론하며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 있을 뿐, 자신의 단점을 거론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다)의 초장은 어느 견해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화자가 거리를 두고 시적 대상인 두꺼비의 행동을 관찰하여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꺼비가 화자라면 자기 자신을 '두터비'라고 호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② (다)의 화자를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한 명의 화자로 보면, 종장은 화자가 거리를 두고 시적 대상인 두꺼비가 놀라서 달아나다 자 빠지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두꺼비를 희화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다)를 시상 전개 과정에서 복수의 화자가 등장하는 (시적 대상인 두꺼비가 새로운 화자로 바뀌는) 작품으로 보면, 종장은 새로운 화자인 두꺼비가 '가슴이 금즉혀'라며 '백송골'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 드러내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